여성 에베레스트 등정의 꿈은 91년 여성 산악인들 사이에서 영글어갔다. 그러나 92년 초 실행단계에 들어가자 일이 꼬이기 시작했다. 스폰서와 훈련을 맡겠다고 나선 남자 산악인들이 ‘여자들이 처음부터 무슨 에베레스트냐’며 사사건건 간섭하기 시작한 것.

“등반은 결과뿐 아니라 준비 과정도 중요합니다. 우리는 그 모든 과정을 직접하려 했고 남자들과의 힘겨운 신경전이 계속됐습니다.”

대원들은 지현옥 씨를 대장으로 해 4개월의 합숙훈련에 들어갔다. 매일 오전 5시에 일어나 도봉산 꼭대기를 뛰어서 오르내렸고, 전 대원이 팔굽혀펴기 200회를 거뜬히 할 만큼 체력을 키웠다.